

“예술은 국경과 이념 극복할 때 가장 빛나”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인터뷰

“문화예술은 고독한 천재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위로를 건네는 게 재단의 역할이다.”

다음달 6일 퇴임을 앞둔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27일 전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날 임기 기간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그는 “폭우로 프리지페스티벌이 취소될 상황에서 시민들이 비웃을 걸쳐 입고 공연을 기다렸고 이에 예술가들은 혼신의 열정을 쏟은 퍼포먼스를 선사했다. 우천 속에서도 환하게 웃는 시민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간다”며 “이 외에도 일본 시민배우 극단을 광주로 초청해 선보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을 다룬 봉선화 연극 공연, 광주에서 대지진 피해를 본 샌다이시를 돕기 위해 ‘Sendai, Our Friend’라는 주제로 개최한 자선음악회, 5·18민주화운동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기념행사, ‘자스민 광주’ 작품으로 에딘버러 축제에 참가해 5스타를 받았던 기억, 2022년 5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 돕기 SAVE & HUG 자선음악회’를 통해 기부금 전달 등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광주문화재단의 창립과 함께 이곳에서 15년간 몸담으며 문화사업실장, 빛고을시민문화관장, 청림감사실장, 전통문화관장 등 다양한 직책을 역

내달 6일 3년 임기 마치고 퇴임 재단서 15년간 다양한 사업 펼쳐 음악 전공, 예술인과 소통에 도움 청년작가·예술단체 등 지원 사업 “장기적 창작 프로젝트 추진 필요”

임했고 지난 2022년 3월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 그간 △목요콘서트 △프리지페스티벌 △아트광주 △문화예술교육 △전통 예술공연 등으로 광주시민에 문화예술 향유를 제공했고 예술단체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도 적극적이었던 평가를 받는다.

이 중 광주문화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인 예술지원사업에서 공정한 지원금 편성과 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했고 일부 분야의 장르가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썼다. 아울러 신진·청년작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을 추진해 지역 청년들이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그는 “청년예술인은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이며 자산이다. 청년 예술인의 역량을 키우고 열정을 발산할 무대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그간 기회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청춘문화누리터 사업, 문화일자리 사업,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레이던스 공간지원,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의 이러한 활동은 그간 축적된 음악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전남대 음악과, 단국대 대학원 음악과 석사,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대학교 교수 등을 거치며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해온 바 있다. 음악을 전공하고 예술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그는 광주문화재단에서 모든 분야의 예술인들과 적극 교류했다. 특히 그의 전공과 연계한 경험은 예술인과 예술행정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광주문화재단의 향

후 발전을 위한 목소리도 냈다.

그는 “재단의 조직·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의 역량도 성장했지만, 시기적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며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과 세분화를 통한 각 예술 분야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지원 모델 개발도 중요하다. 예술인들에게 단기적인 보조금 외에도 장기적인 창작 프로젝트 지원과 멘토링, 네트워크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간접 지원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시민들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개관 10주년과 연계한 문화도시 사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재직 기간 광주성악공쿠르를 발전시켰고 장애인권리보장 조례제정, 예술인권리보호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회적 공헌에도 힘썼지만, 아쉬웠던 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율성에 대한 정진논쟁으로 광주성악공쿠르가 중단된 것은 그에게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꾸준히 광주에서 개최된 ‘정율성음악축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미반영으로 지난해부터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정율성음악축제’에서 선보인 광주성악공쿠르 또한 지난 2023년을 끝으로 중단된 실정이다.

그는 “광주성악공쿠르는 그간 국내의

수많은 우수한 성악가를 배출한 신인 등 용문 역할을 해왔다”며 “예술은 국경과 이념, 세대 갈등을 극복할 때 가장 빛난다. 결국 이념에 사로잡혀 예술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을 저버린 사회 분위기가 해당 사업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퇴임을 앞두고 광주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후배 직원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즐겼으면 한다. 업무 효율이나 숙련도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광주시민을 위한 문화 사업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예술인과 문화향유자인 시민의 이야기를 항상 경청하며 신뢰를 쌓고 문화예술 행사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무처장으로서 3년의 임기를 마친 그는 예술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

김 사무처장은 “잠시 가족과 여행도 가고, 연주회도 틈틈이 다니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들었던 광주문화재단을 떠나지만, 예술인으로서 삶과 문화 현장을 누비는 생활은 계속할 것이다. 꾸준히 예술인들과 소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ACC의 환경 연극 ‘어디로 가야 하지?’.

ACC재단 제공

ACC재단, 어린이 공연 유통 기관 공모

내달 14일까지...6개 기관 선정 공연장 보유 문화예술기관 대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의 창제작 어린이 공연 유통에 참여할 국내 문화예술기관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

27일 ACC재단에 따르면 이 공모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ACC 창제작 어린이 공연 유통 활성화를 통해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우수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통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인형극 ‘갈갈나무’ △어린이 뮤지컬 ‘시아와 친구들: 트레저 헌터즈’ △환경연극 ‘어디로 가야 하지?’ 등 세 편이다.

중앙아시아 설화인 ‘제스텍나르, 페리, 그리고 마마이’를 원작으로 한 ‘갈갈나무’는 보존해야 할 삶의 가치와 자연의 소중함을 우정과 모험의 여정을 통해 일

깨워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시아와 친구들: 트레저 헌터즈’는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지혜의 책, 사랑받는 용감한 영웅 등 아시아 각 지역의 귀한 보물들을 만나는 어린이 뮤지컬이다.

또 말레이시아 그림동화 ‘코끼리 동산’을 원작으로 한 ‘어디로 가야 하지?’는 무분별한 개발로 불행해지는 동물과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돌아보게 만든다.

한편 이번 공모는 공연법에 따른 등록 공연장을 보유한 국내 문화예술기관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ACC재단은 심사를 통해 6개 기관을 선정 후 공연 경비의 일부와 공연 기획 및 진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관은 일부 경비와 공연 운영 및 홍보 등을 담당하면 된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www.accf.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광주시립미술관, 베이징 현지 오픈스튜디오형 전시 ‘성료’

‘들깨풀이 우거지는 동안’ 개최 회화·3D조각·아카이브 등 29점 “중국 예술계와 연계하는 가교”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15~18일 중국 베이징 순의구 이교진 오장일호원예술구에서 진행된 오픈스튜디오형 전시 ‘들깨풀이 우거지는 동안’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시는 ‘2024 북경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운영에 따른 창작 및 연구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이징 예술구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위해 노은영 작가와 시각예술프로젝트 팀 1995Hz(김소진·허요)를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0일까지 파견해 이 기간 답사와 창작활동에 대한 작업내용을 선보이는 오픈스튜디오 형태로 진행됐다.

입주 작가들은 베이징에 머무른 3개월

여간 연구한 ‘들깨풀이 우거지는 동안’이라는 주제로 회화, 3D조각 등의 예술 작품 및 리서치 아카이브 작업을 전시에 구성했다.

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중국 현지에서 포착한 일상의 풍경들을 일기처럼 기록하는 작업 25점을 선보였다.

그의 대표작 ‘가혹한 공간’은 양상한 나무 기둥에 안내 방송을 위한 스피커와 위장용 나뭇가지가 붙어있는 모습을 묘사하며 장소적 차이 너머의 사회문화적 풍경을 화폭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각예술프로젝트 팀 1995Hz(김소진, 허요)는 국내에서 선행된 ‘광주 무등산 프로젝트’와 연계해 중국의 태산, 화산 등을 직접 방문하고 수집한 기록물들을 3D조각, 아카이브 등으로 구현했다.

입주 예술인들은 송광예술촌과 함께 7~8개 예술가가 인접해 있고, 25명의 작가

가 입주한 오장일호원예술구의 왕귀펑스튜디오에서의 레지던시가 다양한 예술인 및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실질적 장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왕귀펑스튜디오 운영자인 왕귀펑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 작가로 이번 북경창작스튜디오 재개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한편 지난 2009년 12월29일 개관해 운영 16주년을 맞이한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는 국내 국립미술관 최초의 해외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지역작가를 비롯한 중국 작가 53명 및 기획자 27명을 배출했다.

윤익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번 전시가 2009년부터 시작된 북경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의 재개를 알리고 동시에, 중국 북경 예술계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국립광주과학관서 학부모 대상 교육적 소통기반 마련

‘과학하는 엄마들 1기’ 모집 코딩교육 체험·소통강연 등

국립광주과학관은 다음달 16일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학하는 엄마들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립광주과학관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과학하는 엄마들’은 유·초등학생 학부모의 과학지식과 과학적 소양 함양과 더불어 자녀와의 교육적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돼 올해 홀수달마다 운영될 예정

이다.

이번 1기는 ‘디지털 리터러시 따라가기’라는 주제로 다음달 18부터 27일까지 2주간 화요일과 목요일 4일간 진행된다. 자녀가 과학관에서 배우는 코딩교육은 △생활속 AI이론 및 작곡AI 활용해보기 △LEGO 스파이크 프라임 코딩 및 자율주행 미션 △아두이노 코딩 △로봇팔 센싱 제어 △디지털 소양교육 △자녀 소통강연 등으로 구성됐다.

이정화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교육실 선

임연구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 학부모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고, 아이들과 프로젝트나 문제해결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하는 엄마들 1기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하면 되고, 선착순 온라인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박찬 기자